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서울신문 특별회견

1980년 11월 21일

-대통령은 「누리는 자리」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 서명을 하는 손은 고독하나 마음은 고독하지 않아-

질문 : 대통령이란 자리는 영광스러우나 고독한 자리라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처럼 어느 때 북괴의 도발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단안을 내려야 할 대통령의 자리는 정말 고독하고 어려운 짐을 진 자리인 듯 합니다.

각하께서는 대통령의 자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 대통령이란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은 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심경은 영광을 누린다는 기분보다도 부하된 책임과 사명이 매우 무겁다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간단한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 나의 대총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주지하다시피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의 의사가 한 자연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때 그 자연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의자에 앉고,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자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편 선택된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의사에 부응한 봉사와 노력을 헌신적으로 실행하는가의 여부를 항상 주의깊이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예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을 단순한 개인적 욕망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시대적인 사고방식이며 장기집권, 개인우상화, 부정선거 내지 타락선거, 극한대결 등도 그런 사고방식이 빚은 불행한 소산이 아니었던가 하는 점을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국민 가운데서 가장 부지런해야 되고 국민이 쉴 때 대통령은 일해야 한다는 자세로 이 직을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 제5공화국의 출범을 위한 기반조성, 산적한 국사의 처리 등 전에 없이 분주한 일과 중에서 각하께서는 중요한 단안을 내리셔야 할 때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답변 : 국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기회를 수다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결단을 회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미룰만한 다른 상위 관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그런 중요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요한 결단을 내림에 있어 결단과 독단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인식

을 항시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유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좁게는 청와대 보좌진이나 내각구성원의 참모기능에 의하여, 그리고 넓게는 광범한 국민여론의 청취에 의하여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에 입각하여 나는 결단을 내리기 전에 나를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은 점을 연구 보고하도록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결단이 역사의 흐름과 국민의 희망에 합치하는가를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생각할 때는 자그마한 웅덩이, 즉 일시의 호도를 하려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희망을 생각할 때는 항상 전체 국민의 깊은 뜻에 눈을 돌려 특수계층만이 이익에 봉사하거나 뜬 인기에 영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장단점을 반드시 부기하라는 것입니다. 장점만이 있고, 단점은 전혀 없는 정책은 벌써 실시되었거나 아니면 구태여 대통령의 결단을 필요로 함이 없이 하부기관의 결정만으로도 실시가 가능할 것들일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의 장단점을 반드시 검토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점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워 나감으로써 어떤 조치가 갖는 장점을 더욱 뜻있게 살리자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림에 있어 보좌진의 보고를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있지만 그 의견들을 종합검토하여 결국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대통령의 자리는 고독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때의 처지를 극명하게 묘사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국민 전체와 함께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비록 서명을 하는 손은 고독하나 마음은 고독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오늘날 신문에 대해 독자를 계도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공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제하의 저항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든 일을 뒤틀린 눈으로 보고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상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신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언론의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은 새삼 여기서 부연할 필요도 없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언론을 지칭하여 헌법상의 3부에 이은 제4부로 비유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국민의 화식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전파 미디어가 대부분의 가정을 파고든 오늘의 시점에서 제4부란 말은 차라리 언론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한 비유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한 달 내내 가도 관공서한 번 들릴 일이 없는 국민이 많을 줄 압니다만, 신문과 방송을 하루라도 접하지 않고 사는 국민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론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졌고, 따라서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언론이

그 영향력과 책임을 합당한 공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확일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공서의 하는 일에도 잘한 일과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양면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일제하의 저항의 전통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통치에 대해 저항한 것은 자주민족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전통은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쏟았던 귀중한 정열들이 오늘날의 언론에서 과연 아쉬움없이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든간에 언론기관들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새로운 설계를 하는 현상을 나는 매우 뜻깊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결의문을 통해 『언론은 나라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회의 공기로서 민족성원의 번영 및 국가의 성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 대해 전적인 공감을 보내면서 그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절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나의 방침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정부에 대한 감시의 기능은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횡포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우기 국토가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과 치열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 국가 이익을 진정으로 지킬 줄 아는 언론 풍토가 뿌리를 내려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회혼란을 부채질하는 언론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국가적인 위기를 수습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 언론이 기여한 공헌은 매우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처럼 되찾은 질서와 안정이 두 번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되겠으며, 이를 파괴하는 어떠한 요인도 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질문 :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사대주의적이며 의존적인 것이었고 진취적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쉽게 타협하는 무사안일적인 기록이라는 평가도 있고 평화애호적이며 낙천적이고 강인하게 자기를 지키려는 의지의 서술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의 개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 우리의 역사를 사대의 역사로 보려는 안목은 일제식민주의사관에 의해 강하게 뿌리를 내려 아직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식민주의사관이 우리 역사에서 중시하고 있는 사대주의·정체성·당쟁·국민적 단결심 부족 등은 피상적으로 볼 때 사실과 얼마간 부합되는 부분이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학의 문외자이긴 하지만, 나로서는 그러한 현상이 한국사를 일관하는 지주도 아니고 민족성을 대변하는 징표도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나는 자주성과 민족주의의 정신이 우리 역사의 저변을 꾸준히 흘러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대주의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민중전체는 그렇지 않았고, 때로는 사대주의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외세에

창조적으로 대응해 간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그보다 수십 배로 큰 나라를 바로 지척에 두고도 언어와 문화와 독립된 생활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주의 역사를 표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사가들이 주장하듯 우리의 역사가 사대주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민족사가 오늘에까지 지속되지 않고 오래 전에 단절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70년전 일본에 합방된 사실이 우리 민족사에서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티가 되고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우리의 주체성을 채찍질하는 귀중한 단속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족의 압제 밑에서 당한 뼈저린 설움과 고통은 민족성원 전체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가 어쨌거나 민족성이 어쨌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민족성과 역사의 관계를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나는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 위해단 민족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던 민족이 종적도 없이 사라졌는가 하면, 역사의 외곽지에서 아무 각광도 받지 않던 민족이 오늘날 번성을 구가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민족에게 특유의 민족성이 있어 그 민족성에 따라 민족사가 전개된다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민족의 진로를 좌우할 중대한 고비에서 당시의 민족성원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 민족사의 명암이 가려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개척할 역사는 우리 민족의 지나온 역사나 민족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들 것이냐를 선택하는 데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지나온 역사가 사대의 역사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자주의 역사를 걸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지나온 역사가 자주의 역사였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자세여하에 따라서는 사대의존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해결할 일을 타민족의 의사에 무책임하게 의탁하는 일은 없는가, 민족성원으로서의 책무를 게을리 하면서 타민족의 언동에 좌고우면하는 일은 없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질문 : 각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력적으로 일하시면서 서민의 저 밑바닥 생활의 보살핌에서부터 최고의 국가정책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항상 국민과 함께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굳히신 것 같습니다. 것처럼 정력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건강의 비결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고래의 해학에 『아플 여가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건강해졌는지 건강하다 보니 열심히 일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굳이 건강의 비결을 말하라고 하면 열심히 일한 것밖에 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30여년간의 군문생활을 통하여 규칙적인 일과가 몸에 배었는데, 이것이 건강유지

의 한 요인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건강을 의식해서 하는 운동도 없고, 아침산책과 테니스를 시간 나는대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질문 : 각하께서는 취임 이후 바쁘신 업무중에도 연극을 관람하시고 음악회도 참관하시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주셔서 관계분야의 인사들로부터 처음으로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각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결들여 우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 문화예술분야의 과제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란 말은 나에게서는 과분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솔직한 나의 입장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경제적인 성장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정신적 분야의 성장에 대해 매우 소홀한 점이 있었고, 따라서 이것은 새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1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교육의 혁신과 문화의 창달을 국정 4대지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참모기능을 대통령비서실에 신설한 것 등은 이러한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제 36년간의 이민족 통치기를 맞아 쇠퇴의 길로 들어선 민족고유의 전통문화는 해방 이후 밀어닥친 구미문명의 급류에 휘말려 매몰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우리 문화생활의 뿌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하여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애정은 과감하게 제고되어야 하며, 이런 뜻에서 전통문화의 보호 전승을 위한 노력과 경제적 투자가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국수주의적으로 이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이질문화에 대한 강렬한 배타의식은 그것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마찬가지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또한 문화의 창달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도 저해요소로 등장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건전한 대중문화의 창달 또한 사회의 다원화와 더불어 국민의 위락과 참여의식을 돋우는 의미에서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질문 : 지금까지 각하께서 국민에게 보여 주신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 일에 대한 끊임없는 정열, 강력한 추진력 등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의 좌우명이라든가, 혹은 생활철학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나의 신조입니다. 노력없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세를 나는 경계합니다.

그 대신 무슨 일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실수는 관용되어

야 하고, 노력을 하고서도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런 뜻에서 『운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세네카」의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사람 자신이 운명을 무겁게 짊어지기도 하고 가볍게 처리하기도 할 뿐입니다. 자신이 약한 줄을 모르고 운명의 무거움만 탓할 때, 그 운명은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결의를 단단히 할 때 그 운명은 어느덧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질문 : 우리 나라는 지난 10여년의 경제성장과 근대화 추진으로 사회 각 분야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반면, 산업화·근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산업화 사회의 국가윤리·사회윤리는 어떤 것입니까?

답변 : 산업화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각자가 영리와 재부를 추구하는 데 너무 골몰한 나머지 민족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겨를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족성원 전체의 번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만의 행복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들이 숭하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선 국가안보 확립과 조국통일 달성이라든가 민주주의의 토착화, 경제적 번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흩어진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라는 대중적 차원에서만 극복이 가능한 과제들입니다. 각 개인이 스스로의 이해에만 집착할 때 국민 전체의 역량은 결집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적 대소과제들도 극복될 길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기 일신의 주인이 되는 데 그치고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각 개인이 참여하지 않는 국민은 허명일 뿐이며, 그와 같은 내실없는 국민이 어떤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화사회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모든 사회의 성원이 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해 나가는 일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한 「플라톤」의 말은 수천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도 매우 뜻 깊은 시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 대통령 각하의 자녀교육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다는 것은 비록 자녀의 개인적 장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자질이 뭉쳐져서 국민 전체의 자질이 되고 국민 전체의 자질이 향상될 때 국가 발전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교육에서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을 어른과 똑같은 모습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회, 특히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젊은 세대의 사고에도 그만큼 진폭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가 기성세대와의 의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를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세대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의식에다가 기성세대의 풍부하고 절실한 체험을 접합시킴으로써 그것을 국가발전의 활력으로 삼는 슬기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 끝으로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바라시는 말씀, 특히 이 시점에서 애국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민주주의를 호흡하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애국심은 왕조시대의 그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와 신민이 따로 존재하면서 신민이라는 주체가 국가라는 객체를 사랑한다는 개념의 애국심은 오늘의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자기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를 위해 땀흘려 일한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애국심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신민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라는 생각, 따라서 나라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오늘날의 애국심을 규정짓는 기초입니다. 나의 일을 대신해서 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개인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전체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사고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이라는 좁은 칸막이에 안주할 때는 나라 전체가 처한 현실을 정면으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 일을 생각하는 데 있어 우리는 문틈으로 옆집을 보는 것과 같은 좁은 시야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되풀이합니다만, 나라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는 문틈으로서가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아니, 다만 직시할 뿐만 아니라 창문 밖으로 나가 진실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나의 일은 나의 손으로 한다는 행동력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애국심입니다.

이러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문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마는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김을 매는 것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상품을 만드는 것도, 병사가 보초를 서는 것도 그 모두가 훌륭한 애국입니다. 자기의 직분에 소홀하면서 다른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것은 올바른 애국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